

SERI 경제 포커스

2009. 7. 28. (제253호)

일본의 환경대국 진입을 가로막는 3대 복병

목차

FOCUS	1
1. 흔들리는 환경강국의 위상	
2. 3대 복병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4
경제일지	15
경제통계	18

작 성: 정호성 수석연구원
(panco88@seri.org)
02-3780-8048
감 수: 김득갑 연구전문위원
(deukab@seri.org)
02-3780-8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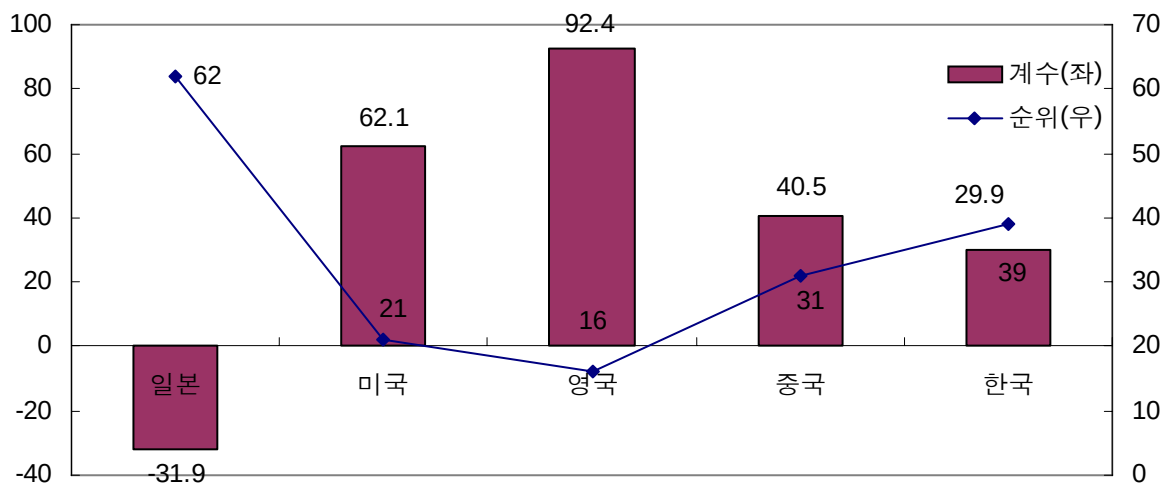
I. 흔들리는 환경강국의 위상

'온난화 대책 평가'에서 일본이 세계 최하위권

□ 세계은행이 발표한 '온난화 대책 평가'에서 일본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을 포함한 전 대상국 중 최하위권

- 세계은행은 1994~2004년의 10년간 각국의 온실가스 삭감에 대한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노력 및 성과를 평가
 -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5개 요인별 증감을 종합한 상쇄계수 (offsetting coefficient)를 통해 순위를 부여¹⁾
- 일본은 전체 70개국 중 62위를 기록, 조사 대상 선진국 중 최하위²⁾
 - 2007년 세계 최대의 CO₂ 배출국이 된 중국이나 교토의정서에서 이탈한 미국보다도 낮은 순위

주요국 온난화 대책 평가 순위



자료: Bacon, R. W. & Bhattacharya, S. (2007. 11.). Growth and CO₂ Emissions: How do Different Countries Fare? (Environment Department papers 113). The World Bank

¹⁾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CO₂ 배출량, 에너지사용 중 화석연료 비중, 에너지사용량의 對GDP 비중, 인당 GDP, 인구의 5개 요인별 증감률의 합(높을수록 온난화 방지 대책이 진전되었음을 의미)

²⁾ 2007년 12월 발리 회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은 국제 NGO 단체로부터 온난화대책후진국을 의미하는 '化石賞'을 받는 등 환경정책의 후진성이 도마위에 올려지기도 함

환경 및 에너지 효율이 동반 정체 (低성장·高배출)

□ '잃어버린 10년'을 통해 고착된 저성장·저배출 구조가 최근 들어 저성장·고배출로 오히려 악화

- 일본은 1971~1990년까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환경 효율'³⁾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효율이 급감
 - 최근 15년간 CO₂ 배출량은 1.0% 증가한 반면, GDP 성장률은 1.3% 증가
- 교토의정서 제1약속기간(2008~2012년) 내에 설정되어 있는 1990년 대비 6%의 삭감의무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
 - 1990년 대비: 2005년(+ 12.4%)→ 2006년(+ 11.1%)→2007년(+ 13.8%)⁴⁾

세계 주요국의 환경 효율 변화

국가	1971~1990년 (19년간, %)			1990~2005년 (15년간, %)		
	CO ₂ 배출	GDP성장	환경 효율	CO ₂ 배출	GDP성장	환경 효율
일본	1.9	4.2	2.2	1.0	1.3	0.3
미국	0.6	3.2	2.6	1.2	3.0	1.8
영국	-0.6	2.3	2.9	-0.1	2.4	2.5
중국	5.2	7.8	2.6	5.4	10.1	4.7
한국	8.0	8.0	0.0	4.3	5.5	1.3
세계	2.0	3.4	1.4	1.6	2.8	1.2

주: 모든 항목은 기간 내 변화율이며, 환경 효율은 GDP성장률에서 CO₂ 배출량을 차감
 자료: Energy Data and Modelling Center (2008). 『エネルギー- 經濟統計要覽 2008』

□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크게 진전된 에너지 효율화도 1990년대 이후 정체

- 1970~1980년대에는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多소비 업종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향상
 - 일본의 철강업체는 1990년대 이전 총 3조 엔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약 25%의 에너지 효율 제고에 성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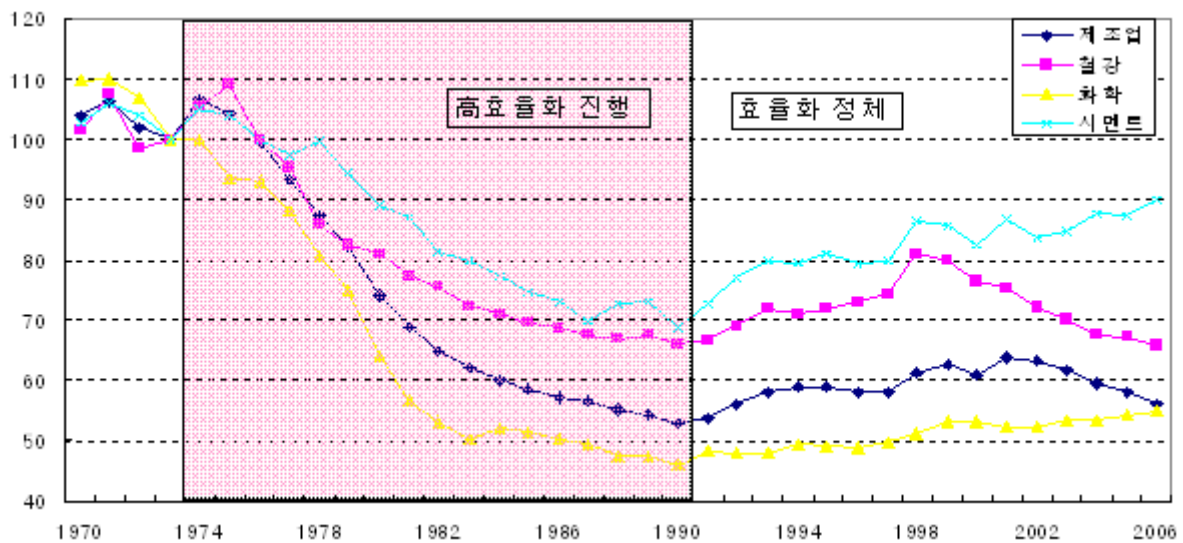
³⁾ 환경 효율은 경제 성장으로 배출한 CO₂의 양을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고효율로 판단

⁴⁾ 日本 國立環境研究所, Greenhouse Gas Inventory Office DB.

-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규투자가 급감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가 정체
- 에너지 절감기술에 필요한 한계 비용이 증가하여 혁신적인 기술 진보 없이는 더 이상의 효율화가 어려운 상황

제조업 에너지 소비 원단위 추이

(단위: 1973=100)



주: 요업(무기재료공업)은 시멘트로 대체. 에너지 원단위는 단위생산량당 에너지 소비량
 자료: Energy Data and Modelling Center (2008). 『에너지-經濟統計要覽 2008』

환경 기술·제품 시장에서도 대외 경쟁력이 약화

□ 최근 40년간 생산량, 도입량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던 태양광 관련 산업에서 일본의 위상이 점차 약화

- 태양전지 생산량은 샤프가 2006년까지 세계 1위였으나 2007년 독일의 Q-cell에게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빼앗김⁵⁾
- Sharp는 2008년 미국의 First Solar 및 중국의 Suntech Power에게 밀려 또다시 4위로 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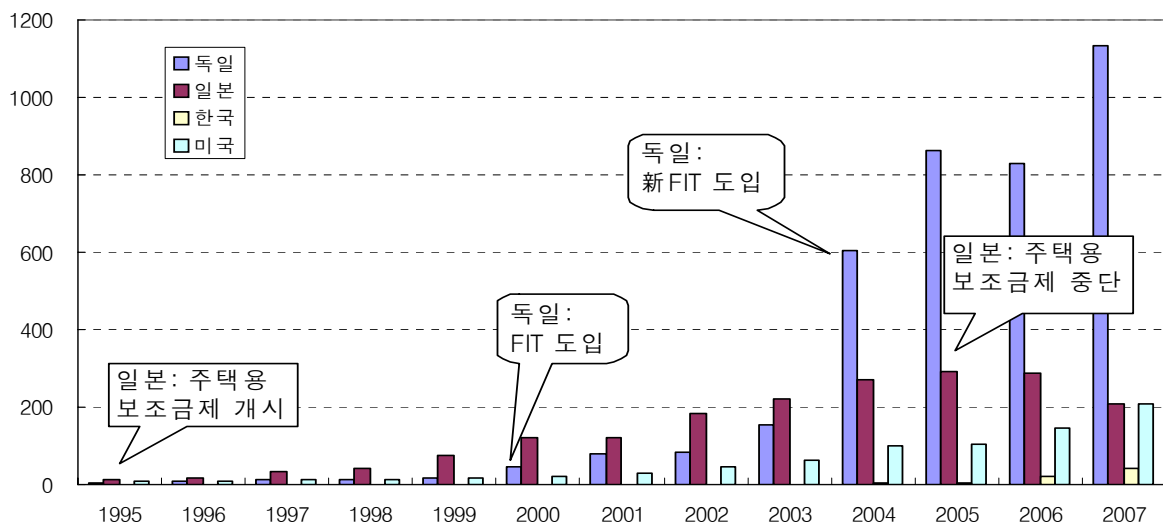
⁵⁾ 철강의 에너지소비 원단위(10,000kcal/백만 엔)는 1970년(1,962)→1990년(1,491)로 감소

⁶⁾ 2008년 생산량 및 시장점유율은 Q-cell(570.4kw, 8.2%), First Solar(550.4kw, 7.4%), Suntech Power(497.5kw, 7.2%), Sharp(473.0kw, 6.8%)

- 태양광발전(photovoltaic power) 보급량에서도 일본은 2004년에 독일에게 1위 자리를 내어준 이후 매년 후퇴를 거듭
- 1994년 도입한 주택형 태양전지 설치 보조금 제도가 2005년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국내 출하량이 2년 연속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주요국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량

(단위: MW)



주: 고정가격전력매수제도(FIT:Feed-in Tariff)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기존 전력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시중가 이상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자료: IEA PVPS (2007). Trends in photovoltaic applications.

□ 친환경차의 대명사인 하이브리드카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가 경영난과 경쟁 심화로 수위 유지가 불투명

- 금융위기 이후의 실적부진으로 환경기술 R&D 투자 재원 마련에 고전⁷⁾
- 고속주행이 많은 유럽에서는 가솔린을 탑재하는 하이브리드카보다는 클린 디젤차가 차세대 기술로 각광
-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전기자동차, 바이오에탄올카도 하이브리드카를 위협하는 대항마로 부상⁸⁾

⁷⁾ 해외수요 급감, 국내시장의 구조적 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판매감소를 겪으면서, 현재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감세 및 보조금 정책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

⁸⁾ GM, 폭스바겐 등은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전기차를 개발하는 전략을 구사

II. 3대 복병

1. 정책 혼선과 컨센서스 도출 지연

부처 간 대립으로 환경정책이 입안 초기부터 난항

- 경제산업성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를 꾀한다는 내용의 미래개척전략 「저탄소 혁명」을 발표
 - 「저탄소 혁명」은 오바마 행정부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등 전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응한 일본판 그린 뉴딜
 - 아소 총리는 '저탄소 혁명을 통해 세계를 리드하는 환경대국으로 거듭난다'는 야심찬 포부를 대내외에 천명⁹⁾
 - 저탄소 혁명을 위한 3대 전략으로 태양광발전을 통한 에너지 절감, 환경차 대중화, 저탄소 교통체제 구축 등을 제시
- 일견 시의적절한 정책이었으나 수립 과정에서의 부처 간 갈등 및 대립으로 정책의 정통성과 추진 동력이 약화
 - 미래개척전략 「저탄소혁명」은 경제산업성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환경성을 포함한 핵심 부처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
 - 선수를 빼앗긴 환경성도 유사한 취지의 '녹색경제와 사회변혁'을 전격 발표
 - 2009년 초 일본판 뉴딜정책을 먼저 구상했으나 경제산업성에게 주도권을 빼앗긴데 따른 교육지책의 산물
-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인 양대 환경정책은 결과적으로 정책의 비전과 내용면에서 기대 이하라는 평가로 연결

⁹⁾ 麻生太郎 (2009. 4. 9.). "일본기자클럽에서의 연설문".

- '미래개척전략'은 장기적인 비전과 실천 가능성을 중시하기보다는 경단련 등 관련 업계를 위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에 불과
- 경제산업성은 철강, 전력 등 기존 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함
- '녹색경제와 사회변혁'도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내용도 '미래개척전략'과 중복¹⁰⁾

경제산업성 vs 환경성 정책 골자

	미래개척전략	녹색경제와 사회변혁
태양광 발전	공공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	공공시설(학교)에 태양광설비 설치
친환경 차	구형차(공용차)의 친환경차 교체 촉진	친환경차 구입시 감세 및 보조금 지급
저탄소 교통	전지식 노면전차의 실용화	환경을 우선시한 교통인프라 구축(자동차 이용환경 정비)

자료: 일본 내각부, 환경성 보도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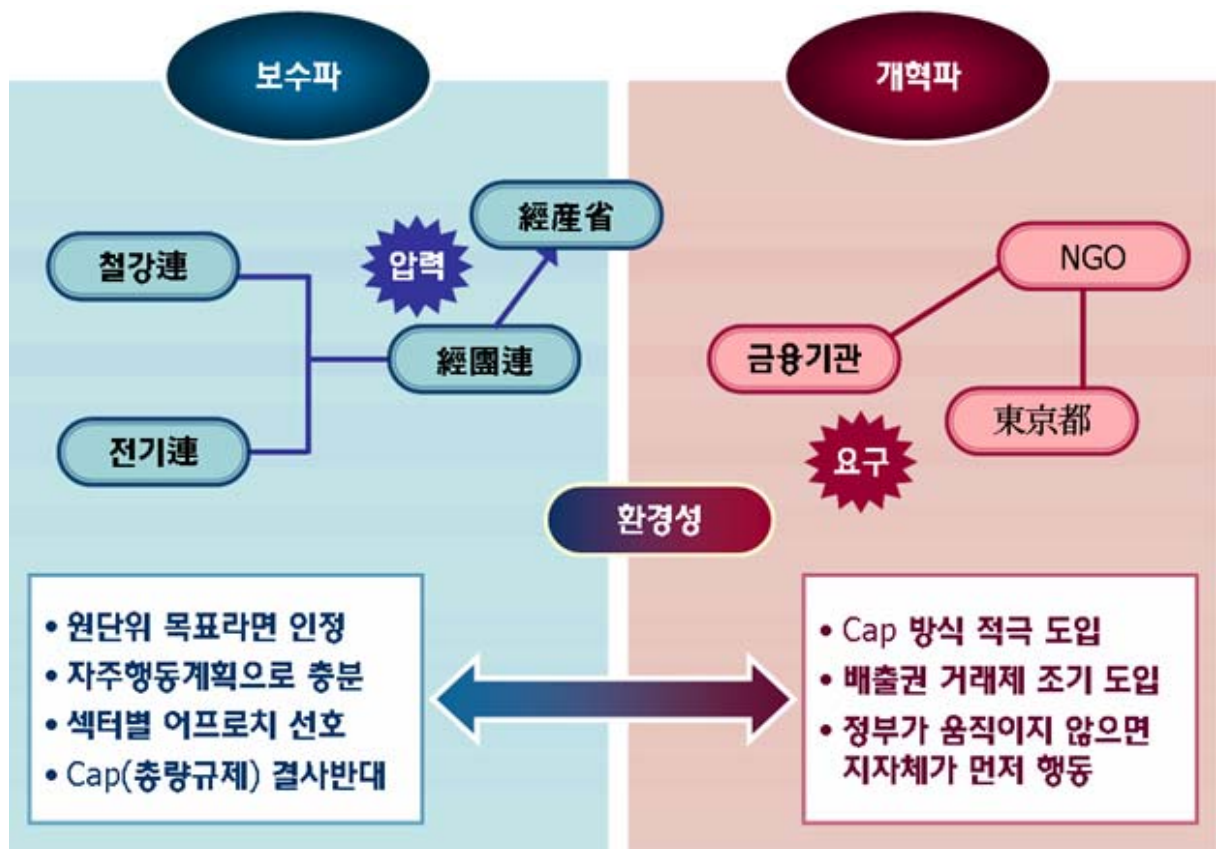
산업계의 반발로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

-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재계, 환경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어려운 상황
- 탄소배출권 시장의 설치를 반대하는 보수파와 설치를 서두르려는 개혁파로 양분
- 2013년 이후의 삭감 목표를 정하는 '중기 목표' 설정에서도 산업계는 최하위 수준인 '현행 노력 유지'를 선택하도록 압력
- 현행 유지 이외의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 및 산업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¹¹⁾

¹⁰⁾ 4월 20일 발표되었으며 '환경성 장관의 책임하에 작성했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정부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정부정책과의 일체감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

¹¹⁾ 경단련 및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일본은 이미 세계 톱 수준의 저탄소사회'라는 논리로 현재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자주행동계획)만으로도 삭감 의지가 충분하다는 주장

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대립구도



주: 1) Cap 방식은 EU 등이 주장하는 총량규제형 방식인 반면, 섹터별 어프로치는 산업별로 삭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다시 합산해 총량을 정하는 방식

2) 에너지원단위: 단위생산량당 에너지 소비량

3) 자주행동계획: 1997년 경단련을 중심으로 책정한 산업계의 자율적 에너지절감 목표
자료: 大野和幸 外 (2008.7.12.). "地球はほんとうに危ないか?" 『週刊東洋経済』를 재구성

□ 탄소배출권 시장과 '중기 목표'의 설정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이견으로 환경 분야에서의 일본의 글로벌 리더십이 손상

- 낮은 수준의 중기목표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
-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가 지연되면서 포스트 교토체제를 둘러싼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에서 무게중심이 EU와 미국으로 이동
 -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지 않는 미국도 교토체제로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질 전망¹²⁾

¹²⁾ 2008년 12월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리더십의 새 장을 열겠다'고 선언

2. 독점 구조

전력업계의 독점구조가 新에너지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

- 전력회사의 독점구조로 인해 태양광, 풍력 등 新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도입 및 생산 증강에 차질
 - 일본은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하나의 전력회사가 발전에서부터 송·배전까지 독점하는 지역독점 체제가 고착
 - 발전, 送・配・賣電,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영향력 등이 전력회사의 3대 독점으로 불릴 정도¹³⁾
 - 전력회사들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에 대해 축전지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책 결정에 압력¹⁴⁾
 -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은 날씨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불안정해, 기존 전력 시스템의 계통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로 전력망 대역에도 난색

NTT의 독점구조와 IT 산업의 추락

- ◇ 1990년대 말 일본의 정보통신기기(IT) 업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자랑했으나 이후 조금씩 약화
 - 독자적 사양을 고집하는 NTT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국내시장 한정형 군소업체로 전락 (갈라파고스화: 세계 시장과 격리)
- ◇ NTT를 전력회사에, IT 업체를 신재생에너지 벤처회사에 비추어 봤을 때, 일본판 그린 뉴딜도 전철을 밟을 가능성

자료: 高橋由里 外 (2009.3.21.). "新エネルギーバブル". 『週刊東洋經濟』.

¹³⁾ 岡田幹治 外 (2009.5.26.). "環境先進國の嘘". 『週刊エコノミスト』.

¹⁴⁾ 반면, EU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송전망을 개방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송전망 회사들이 신에너지 도입에 적극적 <http://www.ewe.org/index.php?id=60&no_cache=1&tx_ttnews>

대기업에 의한 기술 독점으로 벤처 기업 투자가 저조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벤처 투자가 구미 선진국에 비해 부진

- 전 세계적인 환경산업의 붐을 타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¹⁵⁾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이 세계적 조류에서 이탈
 - 2008년 전체 벤처 캐피털(VC) 투자는 734억 엔으로 미국의 약 36분의 1에 불과
- 이 중 에너지 관련 투자액은 회사 수 기준 13.6%(규모 100억 엔)에 불과

미·일 에너지 관련 벤처 투자 규모

(단위: 억 엔, %)

	일본	미국
전체 VC 투자액	734	2조 6,458
1건당 투자액	0.9	10
에너지 관련 투자액	100 (13.6%)	4,339 (16.4%)
에너지 관련 회사 비중	13%	7%

주: 2008년 기준이며, ()는 전체 투자액중 에너지 관련 투자 비중

자료: 일본 JVCA (2008). "2008年 投資動向調査". ; 미국 NVCA (2008). "Yearbook 2008".

□ 대기업의 핵심 기술 독점 및 신기술 개발 비용 상승 등이 벤처 육성에 걸림돌

- 대기업(계열)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벤처 육성의 근간인 창업가 정신 및 창업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빈약
 - 기업활동지수¹⁶⁾ 국제비교에서 선진국 중 최하위이며, 자신이 창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15.2%로 42개국 중 41위¹⁷⁾
- 특히 환경산업의 경우, 핵심이 되는 요소기술을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신기술 개발 비용이 상승하면서 벤처 창업이 더욱 위축

¹⁵⁾ 2008년 환경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약 83.9억 달러로 전년대비 37.8% 증가하는 등 10년간 약 30배 이상 폭증(Cleantech (2008). 3Q 2008 investment monitor.<<http://cleantech.com>>)

¹⁶⁾ 기업활동지수: 생산연령인구(18~64세) 100인 중 일정기간 개업 준비 및 활동에 임했던 사람 수

¹⁷⁾ GEM (2008).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8.

3. 글로벌 환경 대기업의 견제

전통적인 환경강국 일본이 샌드위치 신세

□ 환경산업의 약 80%를 점하고 있는 공해 관련 산업에서 구미의 글로벌 기업이 약진하면서 일본기업을 위협

- 일본 업체는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공해 관련 산업에서 구미기업에게 열세¹⁸⁾
 - 淨化처리 설비, 플랜트 건설 등 제조(모노쓰꾸리) 영역에서 강점이 많지만 설비의 도입, 관리 운영 능력 등 서비스 제공력이 취약
- 水처리 분야에서는 경험과 노하우, 건설에서 관리·운영까지의 일괄 수주에 의한 코스트 절감 능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구미기업이 시장을 과점¹⁹⁾
 - 2008년 세계 물 관련 시장은 약 3,489억 달러로 이 중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이 전체의 53%를 차지²⁰⁾

풍력발전의 성장과 구미기업의 활약

◇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풍력발전에서도 구미기업의 활약이 현저

- 2008년 세계의 풍력발전 지역별 비중은 미국이 20.8%로 1위로 부상
 - 독일(19.8%), 스페인(13.9%), 중국(10.1%)순으로 구미기업이 강세
- 유럽에서는 풍력발전 전력에 대한 정부 구매, 세제 혜택 등의 촉진책에 힘입어 대형 신규투자가 활성화
 - 노르웨이 전력회사 StatoilHydro는 풍력발전 시설에 약 62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며, 독일의 REW도 2011년 가동을 목표로 발전소 건설을 계획

자료: "風力發電, 世界30%割増." (2009. 7. 16.). 『Nikkei』.

¹⁸⁾ 공해 관련 산업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공업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

¹⁹⁾ 2006年 히로시마 西部수자원재생센터에 대한 관리·운영을 비올리아社(佛)가 수주하는 등 일본 본토에서까지 구미勢에 밀리는 상황이 속출

²⁰⁾ Global Water Intelligence (2008). Global Water Market 2008.

-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구미기업 및 신흥국 대기업 사이에서 일본 업체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
 - EU 각국은 고정가격전력매수제도(FIT)²¹⁾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도 환경 비즈니스에 대한 감세 및 융자보증 확대를 실시
 - 중국의 풍력발전 능력은 2008년에 전년대비 약 2.1배(122억w) 증가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단숨에 4위로 부상
 - 태양전지 생산 2008년 세계 10대 기업에 중국(Suntech Power, Baoding Yingli, JA Solar), 대만(Motech Solar) 4개사가 포진
 - 인도의 풍력발전산업은 로컬 기업인 Suzlon의 약진 등에 힘입어 2008년 세계시장 점유율 8.0%로 중국에 이은 5위를 기록

III. 시사점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의 잠재적 위협요인을 사전 점검

-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환경산업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장애물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
 -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환경강국이었으나, 정책 혼선, 독점구조, 글로벌 환경 대기업의 견제 등으로 四面楚歌의 위기
 - 한국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의 토끼의 처지에 놓인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잠재적 위협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할 필요
 - 정책 중복과 혼선, 버블 형성, 낮은 글로벌 경쟁력 등이 대표적인 잠재적 위협요인

²¹⁾ 2000년 독일의 FIT 도입 이후 덴마크, 스페인 등을 거쳐 EU 전역으로 확산

적극적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정책 결정에는 신중

□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중장기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은 당분간 유효하나 정책 결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 녹색산업의 성장에는 정부 정책에 의한 수요 및 시장 창출이 전제 조건
 - 기존 화석연료에는 온실가스 등의 공해 처리비용이 가격에 전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논리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공정한 가격경쟁이 불가능
- 한국정부가 경기부양의 약 80%에 달하는 투자 규모로 녹색산업의 중장기적 수요창출에 나선 것은 고무적²²⁾
- 다만 정책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되 결정된 규제와 제도는 일관성을 유지
 - 잘못된 시장예측으로 인한 선부른 정책 결정 및 변화는 예산 낭비와 기업 피해를 초래²³⁾

□ 부처 및 업계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제고

- 일본의 사례로 보아 배출권 거래제·거래소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산업계 간의 충분한 조율을 통한 신중한 결론 도출이 요구
- 정부 당국과 산업계의 컨센서스는 12월 7~18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COP15(15차 당사국 총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시킬 가능성

투자 대상 확대 및 '옥석 가리기'를 통해 버블을 차단

□ 그린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책 변화 고려는 시기상조

- 관련주 급등, 과잉 투자, 벤처 난립 등 그린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

²²⁾ HSBC (2009). A Climate for Recovery-The colour of stimulus goes green.

²³⁾ 일례로 한국정부가 태양광발전 촉진 차원에서 평균 전기 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던 보조금제가 설비투자의 과잉으로 지급이 어려운 상태

- 하지만 실제 대형 투자는 대기업 및 일부 상장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관련 설비투자가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정책기조 변화에는 신중²⁴⁾
- 특정 산업에 편중된 녹색투자를 하드, 소프트 양면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고, 녹색인증제 등을 통한 옥석 가리기로 버블 형성을 방지
-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고효율화 등 하드 부문에 편중된 녹색투자를 금융 및 서비스 등 소프트 부문으로 확대²⁵⁾
 - 설비도입, 관리·운영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실질적인 '녹색기술인증' 제도를 마련해 정책 지원대상 심사를 강화
 -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이 녹색시장의 리스크를 관리·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글로벌 환경 대기업의 육성을 위한 토대를 강화

- 글로벌 녹색경쟁을 주도해갈 환경 대기업 및 지자체의 육성에 전력
- 향후 글로벌 녹색경쟁은 기업, 지자체, 정부 간 경쟁으로 확대
 - 입지 및 환경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자체별 녹색투자의 특성화를 유도
- 정부는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감세 및 보조금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 기업은 정부 효과에 안주하지 말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투자,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설계 및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독자적인 경쟁력을 배양

〈以上〉

²⁴⁾ 일본정부가 2005년 보조금 폐지에 따른 시장 축소를 교훈 삼아 뒤늦게 FIT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력사의 반발로 혜택 대상이 기업을 제외한 가정 및 공공시설에 국한될 위기

²⁵⁾ 미국의 경기부양책 중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투자 비중은 신에너지(15%), 공공교통(17%), 스마트 그리드(10%), 수처리(12%) 등으로 균형(Deutsche Bank (2009). Global Climate Change Regulation Policy Developments: July 2008 - February 2009.)

주간 금융지표

금리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발언 및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하락

	7.20	7.21	7.22	7.23	7.24
회사채(AA-)	5.57	5.56	5.61	5.58	5.58
회사채(BBB-)	11.64	11.63	11.67	11.64	11.64
국고채(3년물)	4.18	4.16	4.21	4.16	4.16
콜금리	1.98	1.99	1.91	2.00	1.99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대비 약세, 엔화, 유로화 대비 강세

	7.20	7.21	7.22	7.23	7.24
원/달러	1250.2	1248.5	1248.0	1248.7	1249.6
엔/달러	94.21	93.69	93.60	94.97	94.80
달러/유로	1.4228	1.4213	1.4211	1.4160	1.4205
원/100엔	1327.11	1332.59	1333.33	1314.84	1318.21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및 외국인 대규모
주식순매수로 급등

구 분		7.20	7.21	7.22	7.23	7.24
거래소	KOSPI(p)	1478.51	1488.99	1494.04	1496.49	1502.59
	거래량(만주)	50,394	51,309	50,596	64,158	53,109
	시가총액(조원)	767	773	776	777	780
	외국인순매수(억원)	5,153	4,029	3,157	3,162	4,375
코스닥지수(p)		493.62	495.91	497.77	497.89	500.02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주간 경제일지

(7. 27 ~ 7. 31)

7. 27. (월)

- 국내 보도자료: 2009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2009년 6월 미국 신규주택판매 (미국 상무부)

7. 28. (화)

- 국내 보도자료: 2009년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한국은행)
2009년 상반기중 전자어음 이용현황 (한국은행)
2009년 7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한국은행)

7. 29. (수)

- 국내 보도자료: 2009년 2/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2009년 6월중 국제수지 동향 (한국은행)

7. 30. (목)

- 국내 보도자료:
- 해외 보도자료: 2009년 7월 EU 경기체감지수 (EU 집행위원회)
2009년 6월 일본 광공업생산 (일본 경제산업성)

7. 31. (금)

- 국내 보도자료: 2009년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 해외 보도자료: 2009년 2/4분기 미국 실질GDP(속보치) (미국 상무부)
2009년 6월 EU 실업률 (EU 통계청)
2009년 7월 EU 소비자물가 (EU 통계청)
2009년 6월 일본 실업률 (일본 총무성)
2009년 6월 일본 가계소비지출 (일본 총무성)
2009년 6월 일본 소비자물가 (일본 총무성)

주간 해외 경제일지

(7. 20 ~ 7. 24)

미 주

7. 20. (월) · 미국: 6월 신규주택착공 전월대비 3.6% 증가한 연률 58만 2천채 기록
7. 21. (화) · 미국: 컨퍼런스보드, 6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
7. 22. (수) · 미국: 5월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9% 상승,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 - 전년동월대비 5.6% 하락, 10개월래 최저 하락 기록
7. 23. (목) · 미국: 6월 기존주택판매는 전월대비 3.6% 증가한 연률 489만채 기록, 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
7. 24. (금) · 미국: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66으로 전월(70.8)대비 하락

유 럽

7. 20. (월) · 독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6% 하락, 독일연방통계청
7. 21. (화) · 영국: 6월 재정적자는 전년동월(75억파운드)보다 크게 확대된 130억파운드 (214억달러) 기록, 영국 국가통계청(ONS)
7. 22. (수) · EU: 유로존 5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0.1% 감소, Eurostat
7. 23. (목) · 영국: 6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1.2% 상승, 영국 국가통계청(ONS) - 전년동월대비로는 2.9% 상승
7. 24. (금) · EU: 유로존 7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복합 구매관리자지수는 전월(44.6) 보다 상승한 46.8 기록

일 본

7. 20. (월)
- 일본: 경기침체로 정기예금 7년 만에 최고치 기록 - 5월말 현재 잔고 195조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9% 증가
7. 21. (화)
일본: 상반기 수출 전년동기대비 42.7% 감소한 24조 67억엔, 감소폭 사상 최대 기록, 재무성
7. 22. (수)
일본: 개인 자금수요 판단지수 올해 4월 조사대비 10p 하락한 -14p 기록 하여 사상 최저 수치기록, 일본중앙은행(BOJ)
7. 23. (목)
- 일본: 6월 무역수지 흑자액이 전년동월대비 388% 증가한 5,080억 엔 기록, 재무성 - 무역수지 20개월 만에 증가세
7. 24. (금)
일본: 경기침체로 2009년 1/4분기 과잉인력 607만 명 기록, 1980년 이후 최대, 내각부

동 남 아

7. 20. (월)
- 태국: 6월 수출 123억 달러 기록, 전년동월대비 -25.9%로 8개월 연속 감소 - 5월 기준 사상 최악이었던 -26.6%에 비해 감소세는 다소 완화
7. 21. (화)
- 필리핀: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 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배 상승 - 정부 세수가 43%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19% 증가한 것에 기인
7. 22. (수)
- 베트남: 1~7월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9.25% 상승할 것으로 추산 - 7월 CPI 전월대비 0.52% 상승할 것으로 예상
7. 23. (목)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외환보유고 7월 15일 기준 단기외채의 3.8배 규모인 912억 달러 기록,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7. 24. (금)
- 베트남: 상반기 수출 32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4% 감소, 베트남 통계총국 - 국내기업 매출 164억 달러로 47% 감소, 외국투자기업 매출은 159억 달러로 20.8% 급감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4	4.7	43.3	6.1	3.6	3.7	9.5	4.6	6.1	4.7	0.06	0.04	895.9
2005	4.2	46.9	2.1	2.8	3.7	8.1	6.9	7.0	4.7	0.04	0.03	1,379.4
2006	5.1	47.6	0.9	2.2	3.5	5.7	8.3	7.9	5.2	0.02	0.02	1,434.5
2007	5.0	49.4	1.4	2.5	3.2	6.6	11.2	10.2	5.7	0.02	0.01	1,897.1
2008	2.5	43.8	8.6	4.7	3.2	0.6	14.3	11.9	7.0	0.03	0.02	1,124.5
2008. 6	3.8	37.7	10.5	5.5	3.1	0.0	15.1	12.7	6.68	0.03	0.02	1,674.9
7			12.5	5.9	3.1		14.8	12.1	6.99	0.02	0.01	1,594.7
8			12.3	5.6	3.1		14.7	11.8	7.11	0.02	0.02	1,474.2
9			11.3	5.1	3.0		14.5	12.2	7.46	0.02	0.01	1,448.0
10			10.7	4.8	3.0		14.2	11.9	7.95	0.03	0.02	1,113.1
11	-3.4	38.5	7.8	4.5	3.1	-6.2	14.0	11.4	8.56	0.03	0.02	1,076.1
12	-4.2	41.5	5.6	4.1	3.3	-2.5	13.1	10.4	8.35	0.04	0.03	1,124.5
2009. 1			4.7	3.7	3.6		12.0	9.2	7.34	0.04	0.03	1,162.1
2			4.4	4.1	3.9		11.4	8.8	7.07	0.04	0.03	1,063.0
3			3.5	3.9	3.5		11.1	8.4	6.14	0.05	0.02	1,206.3
4			1.5	3.6	3.8		10.6	7.7	5.68	0.03	0.02	1,369.4
5	-2.5	48.9	-1.3	2.7	3.8	..	9.9	7.3	5.16	0.04	0.03	1,395.9
6			-3.1	2.0	3.9		..	..	5.21	0.02	0.01	1,390.1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 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 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4	95.8	100.3	1.1	-4.8	5.3	7.0	-3.9	80.1	10.8	54.7	10.1	13.6
2005	100.0	99.4	4.2	3.0	7.9	1.0	7.3	79.7	6.3	28.9	7.5	8.6
2006	105.2	99.9	4.0	3.4	7.9	16.2	9.0	80.0	8.7	55.7	7.6	6.8
2007	111.9	100.6	5.1	0.8	8.5	21.1	23.6	80.1	7.1	19.8	6.1	8.8
2008	113.1	99.3	1.0	0.5	2.2	-5.5	-9.0	77.2	3.0	5.1	-3.4	24.8
2008. 6	114.6	100.6	-0.7	5.7	2.7	5.6	-23.0	80.2	7.2	33.0	6.2	23.6
7	113.8	100.4	4.1	-0.5	5.1	20.7	-13.2	79.2	8.4	22.5	-5.9	29.3
8	113.5	100.1	2.2	8.4	2.3	-3.9	-8.1	78.4	1.9	2.4	-8.5	26.5
9	113.4	99.8	-1.9	-5.0	-7.1	-34.3	-39.8	77.3	6.3	-1.5	-4.3	37.0
10	112.7	99.2	-3.4	-2.0	-0.8	-36.5	-23.7	77.3	-2.3	-17.1	-0.7	36.1
11	111.3	97.3	-4.7	-0.4	3.3	-43.9	-39.3	68.4	-14.4	-34.3	-17.2	29.7
12	110.4	94.6	-4.5	-11.9	-5.5	-38.5	30.7	62.3	-19.9	-47.8	-29.0	36.7
2009. 1	110.6	92.4	-3.3	8.7	10.1	-46.9	-15.0	61.4	-26.9	-39.7	-50.0	12.8
2	111.8	92.0	-6.1	-5.2	-19.2	-28.8	-20.7	66.9	-10.3	-24.3	-19.2	33.8
3	112.9	92.5	-5.2	0.4	-5.2	-30.2	-14.7	69.2	-11.1	-21.4	-26.5	36.1
4	115.0	93.5	-3.9	0.9	-4.2	-25.8	-8.0	71.6	-8.8	-12.6	-24.4	17.3
5	117.4	93.8	1.7	4.6	-0.5	-16.1	-18.5	73.0	-9.4	-13.4	-22.4	15.5
6	..	..	..	..	..	..	..	..	..	..	..	..

주: 반도체는 2006년 7월로 통계청 DB내 '반도체 및 기타 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대외거래 ◆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EU		교역지수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4	253,845	31.0	224,463	25.5	42,849	25.2	129,525	30.4	49,763	41.7	37,830	52.0	-4.1
2005	284,419	12.0	261,238	16.4	41,343	-3.5	146,914	13.4	61,915	24.4	43,659	15.4	-7.4
2006	325,465	14.4	309,383	18.4	43,184	4.5	168,447	14.7	69,459	12.2	49,240	11.0	-6.6
2007	371,489	14.1	356,846	15.3	45,766	6.0	188,790	12.1	81,985	18.0	55,982	15.5	-2.5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	-13.8
2008. 6	37,259	16.4	37,828	32.7	4,215	9.6	19,932	28.7	8,713	33.1	4,389	-15.8	-13.8
7	40,961	35.6	42,952	47.0	4,147	9.3	21,835	39.7	8,961	30.1	5,224	12.5	-14.3
8	36,611	18.1	40,420	36.4	3,549	1.0	19,094	20.0	8,539	19.3	4,878	6.1	-16.7
9	37,428	27.6	39,528	45.4	3,834	19.3	18,514	18.1	8,090	15.0	5,203	26.9	-14.9
10	37,111	7.8	36,099	10.3	4,435	5.0	18,018	2.6	7,468	-3.5	5,325	5.1	-17.7
11	28,842	-19.5	28,854	-15.0	3,498	-14.3	13,390	-26.5	5,296	-33.3	4,217	-20.9	-13.7
12	27,118	-17.9	26,576	-21.6	3,491	-9.4	12,418	-26.5	4,715	-35.4	3,269	-34.3	-7.9
2009. 1	21,134	-34.5	24,881	-31.5	2,627	-28.1	10,445	-36.7	4,464	-38.6	3,057	-42.2	4.8
2	25,398	-18.5	22,552	-30.9	2,742	-18.4	12,756	-20.2	5,561	-13.6	3,165	-26.3	8.4
3	28,033	-22.1	23,861	-35.7	2,973	-27.2	14,046	-24.5	6,475	-22.4	4,060	-26.1	5.3
4	30,357	-19.8	24,724	-35.4	3,271	-22.8	14,972	-24.3	6,992	-19.1	4,338	-19.0	7.9
5	28,113	-28.6	23,191	-40.1	2,942	-24.0	14,792	-26.0	6,637	-25.6	3,999	-26.4	15.0
6	32,634	-12.4	25,364	-32.9	3,271	-22.4	16,164	-18.9	7,331	-15.9	4,302	-2.0	..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4	28,174	37,569	-8,046	1,083	7,599	4,588	6,599	199,066	1,043.8	1,012.07	1,723	1,167
2005	14,981	32,683	-13,658	-1,563	4,757	2,010	-3,518	210,391	1,013.0	859.90	1,879	1,292
2006	5,385	27,905	-18,961	534	17,972	-4,540	-23,230	238,956	929.6	781.83	2,601	1,208
2007	5,876	28,168	-19,768	1,003	7,128	-13,836	-26,058	262,224	938.2	833.33	3,832	374
2008	-6,406	5,994	-16,734	5,107	-50,933	-10,595	-15,368	201,223	1,257.5	1,393.89	3,805	-323
2008. 6	1,824	3,478	2,126	827	-3,565	-739	-5,696	268,098	1,043.4	981.79	4,255	-240
7	-2,534	218	-2,456	240	-5,775	-1,214	-8,856	247,523	1,008.5	932.85		
8	-4,696	-2,803	-2,000	325	5,312	-743	-567	243,200	1,081.8	987.90		
9	-1,350	-890	-1,236	792	-4,388	-327	-2,970	239,672	1,187.7	1,144.22		
10	4,753	2,626	-55	1,411	-24,835	-199	5,173	212,253	1,291.4	1,306.03		
11	1,907	845	-130	720	-12,141	-214	-3,140	200,506	1,482.7	1,553.79	3,811	-326
12	861	1,496	-1,517	576	-4,829	-195	-1,012	201,223	1,257.5	1,393.89	3,693	-239
2009. 1	-1,636	-1,737	-709	564	5,139	-55	5,679	201,741	1,368.5	1,520.98		
2	3,564	3,107	-529	485	-2,977	-546	161	201,536	1,516.4	1,541.14		
3	6,649	6,979	-646	-216	-2,711	-594	-2,308	206,340	1,377.1	1,414.80		
4	4,247	6,132	-1,109	-856	2,161	80	7,133	212,478	1,348.0	1,382.92		
5	3,633	5,019	-1,467	358	6,720	-259.6	4,274	226,766	1,272.9	1,314.10	..	..
6	..	..	...	..	..	..	..	231,734	1,284.7	1,336.28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4	3.6	2.5	2.7	5.5	8,075	14,771	-6,250	2.25	10,783.0
2005	2.9	3.3	3.4	5.1	8,946	16,818	-7,290	4.25	10,717.5
2006	2.8	2.2	3.2	4.6	10,231	18,614	-7,881	5.25	12,463.2
2007	2.0	1.7	2.9	4.6	11,485	19,679	-7,312	4.25	13,264.8
2008	1.1	-1.7	3.8	5.8	12,914	21,122	-6,733	0.25	8,776.4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¹⁾	소비자물가 ²⁾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³⁾	주가(기말) ⁴⁾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4	2.7	5.6	0.0	4.7	6,117	4,922	1,019	0	11,489
2005	1.9	1.1	-0.3	4.4	6,566	5,695	1,195	0	16,111
2006	2.4	4.6	0.3	4.1	7,525	6,734	8,71	0.25	17,226
2007	2.1	2.9	0.0	3.9	8,393	7,314	7,90	0.50	15,308
2008	-0.6	-3.2	1.4	4.0	8,105	7,889	1,080	0.10	8,860

주: 1) 광공업생산, 2) 전년동기비, 3) overnight call, 4) Nikkei 225

[유로지역]

	성장률	산업 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2.1	2.3	2.1	9.0	11,197	10,553	580	2.00	2,951.2
2005	1.7	4.1	2.2	9.0	12,091	12,041	138	2.25	3,578.9
2006	2.9	5.1	2.2	8.3	13,521	13,715	0	3.50	4,119.9
2007	2.6	2.8	2.1	7.5	15,059	14,900	306	4.00	4,399.7
2008	0.8	1.7	3.3	7.6	15,617	15,929	-686	2.5	2,447.6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3)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1.2	4.2	1.7	10.6	7,261	5,714	1,029	1.98	4,256.1
2005	0.8	3.0	1.6	11.7	7,835	6,259	1,147	2.32	5,408.3
2006	3.0	5.3	1.6	10.8	8,941	7,322	1,509	3.48	6,596.9
2007	2.5	5.8	2.3	9.0	9,707	7,717	1,913	3.66	8,067.3
2008	1.3	0.6	2.6	7.8	9,902	8,135	1,649	0.86	4,810.2

주: 1) 전년동기대비, 2)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3)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4	2.8	0.9	1.3	4.8	1,909	2,518	-252	4.75	4,814.3
2005	2.1	-1.5	2.0	4.8	2,116	2,801	-327	4.50	5,618.8
2006	2.8	0.6	2.3	5.4	2,436	3,199	-450	5.00	6,220.8
2007	3.0	0.5	2.3	5.4	2,208	3,106	-403	5.50	6,456.9
2008	0.7	-2.8	3.6	5.6	2,510	3,439	-245	2.00	4,392.7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란은행 RP 금리, 3) FTSE 100지수(1984.1.3=1,000)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2.5	2.1	2.1	9.3	3,385	3,441	95	2.04	3,821.2
2005	1.9	0.2	1.7	9.3	3,554	3,790	-111	2.36	4,715.2
2006	2.4	1.0	1.7	9.2	3,884	4,177	-99	3.43	5,541.8
2007	2.1	1.5	1.5	8.4	4,031	4,431	-198	3.76	5,614.1
2008	0.7	-2.3	2.8	7.8	4,120	4,654	-391	1.66	3,218.0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국채수익률, 3)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4	10.1	16.7	3.9	4.2	5,934	5,614	320	5.58	1,266.50
2005	10.4	16.4	1.8	4.2	7,620	6,601	1,019	5.58	1,161.06
2006	11.1	16.6	1.5	4.1	9,691	7,916	1,775	6.12	2,675.47
2007	13.0	18.5	4.8	4.0	12,180	9,558	2,627	7.47	5,261.56
2008	9.0	12.9	5.9	4.2	14,285	11,331	2,955	5.31	1820.8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4	6.2	9.3	1.6	4.4	1,824	1,688	136	1.75	6,139.69
2005	4.2	3.8	2.3	4.1	1,984	1,826	158	2.25	6,548.34
2006	4.8	4.7	0.6	3.9	2,240	2,027	213	2.75	7,823.70
2007	5.7	7.8	1.8	3.9	2,467	2,193	274	3.38	8,506.28
2008	0.1	-2.0	3.5	4.1	2,557	2,408	148	2.00	4591.22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